나주시 AI 예방 위해 농가 출입관리 시스템 개발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8월까지 디바이스 개발 완료
차량·인원 등 자동 데이터화…농가 100곳 시범 운영

국내 최대의 오리 산지인 나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사전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 출입관리 스마트 디바이스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나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공수요 맞춤형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AI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출입관리 시스템 개발'이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최첨단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에 적용,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선정과 동시에 나주시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개발 전문 업체 ㈜이노씨엔에스에 의뢰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에 착수한 스마트 디바이스 시스템은 지역 가금류(닭·오리) 축사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파악해 자동 데이터화 하고 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함으로써 AI 차단 방역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나주시는 오는 8월까지 농가 출입관리 디바이스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가금류 농가 100곳을 선정해 시스템 시범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시스템이 전체 농가에 보급되면 강도 높은 방역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 발생되는 AI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AI 예방과 확산방지 등 사회 안전 분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AI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난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호 저수율 하락 비상

34% 이하로 크게 떨어져
8~11일 농업용수 공급 중단

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나주호에 저수율 저조로 나주평야에 농업용수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

6일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따르면 나주호에 저수율이 34%이하로 떨어져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한시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업용수 공급 중단 대상지역은 나주호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나주시 이창동과 영산동, 금천, 산포, 남평, 봉황, 다도, 세지, 왕곡, 반남, 공산면, 영암군 시종면 등 일원 9054ha이다.

이번 단수조치는 최근 나주호의 저수율이 34%이하로 떨어짐에 따른 긴급 용수절약 대책의 일환이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지난달 17일부터 하루 평균 83만t씩 나주호에 물을 농업용수로 내보내면서 나주들녁에 99%의 논 물잡이를 완료한 상태다.

나주호는 유효저수량 1억 600만t으로 국내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물수지가 악화되면서 연초에는 저수율이 25% 까지 하락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8월까지 평년수준 강우를 가정했을때 8월말에는 나주호 저수율이 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이달 12일부터 용수공급을 재개해 이모작 논의 모내기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이달 22dlf 이후부터는 5일간 단수하고 7일간 통수하는 주기로 용수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단수조치는 나주들녁에 논 중 이모작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하천으로 소실되는 농업용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수계획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영농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주 관내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행정방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 직원들이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일손 부족 농가 돕기 발벗고 나서

나주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 달간을 '봄철 농촌일손돕기' 중점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현장 일손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는 고령과 독거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적기 수확이 절실한 양파와 마늘 등 밭작물 걷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공산, 다도, 문평면 등 양파·마늘 재배 농가에 직원 3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내 가족의 일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는 직원들의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지친 농가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일손돕기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나주시보건소, 목사고을시장서 구강보건 행사

나주시 보건소는 제 73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은 지난 4일 나주목사고을시장 광장 일원에서 구강보건 행사를 개최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는 어린이와 지역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치아 관리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특히 치아모형을 활용한 칫솔질과 치실 사용법 등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 생활 속 올바른 양치 습관 및 치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은 행사장서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등을 통해 아동들의 치아우식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도포를 실시했으며 노약층 입안 건조증 예방을 위한 침샘을 자극하는 '입 체조'도 호응을 얻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전남도 유망 중기 선정' 26일까지 신청 접수

나주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제조업은 2018년 기준 지난 3년 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신청 기업에 대해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재무·기술·일자리창출·기업업력 등을 평가해 가점을 매기는 1차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업만 전남도에 추천하게 된다.

전남도는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등 종합평가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초에 '2018 전남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융자금과 이자 지원액 상향 등 자금 지원, 국내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인터넷 오픈 마켓 입점 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판로, 수출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프랑스서 발견 '나주 접선' 석현동 석정마을서 제작"
향토사학자 허북구씨 밝혀

프랑스 부채박물관에서 발견된 조선 최고부채인 '나주 접선'(摺扇·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부채·사진)을 만들었던 마을이 향토사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허북구 운영국장은 "나주 접선을 복원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나주시 석현동 석정마을'이 광복 전까지 주민 전체가 부채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던 곳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허 국장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나주소반장 김춘식 선생 또한 선대(조선시대)부터 광복 직후까지 부채를 만들었던 석정마을 출신의 집안 형님인 김낙균(1919년생) 씨로부터 부채 제작 기능을 전수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정교한 문양의 목살과 용이 조각된 상아 잣대로 제작한 조선시대 나주산 희귀 화접선(畵摺扇)이 프랑스 파리 부채박물관에서 발견돼 화제가 됐다.

허 국장은 파리에서 발견된 화접선이 나주 석현동 석정마을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옛 문헌을 보면 나주는 조선시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부채 명산지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전주와 남평(南平·현재 나주시 남평읍)에서 만든 부채가 가장 질이 좋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학자 이규경이 쓴 일종의 백과사전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나주 남평의 부채를 최고로 친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나주가 과거 부채 명산지로 유명했다는 기록과 유물이 있지만, 복원을 앞두고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동안 명확하게 확인을 못 했다.

하지만 나주천연염색재단 허 국장의 발품과 끈질긴 노력으로 나주 전통부채를 만들었던 마을이 밝혀진 것이다.

허 국장은 "현재 석정마을 주민들조차도 이 마을이 과거 부채 산지였던 사실을 모를 정도로 잊히고 있다"며 "나주 전통부채의 위상 제고와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마을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활용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